

■ 01. 승호구역 - 금옥리 1호분

<유형문화유산-고분유적-고구려-봉토석실분-벽화고분>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유 적 | 금옥리 1호분 | 주변유적 | 금옥리 고분군 |
| 소재지 | 황해북도 승호구역 금옥리 | 시대 | 고구려 |
| 조사일시 | 1979 | 조사기관 |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|

| | | | | |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무덤방향 | 남향 | 구조 | 이혈합장 | 벽화내용 | 생활풍속 |
| 봉분형태 | 타원형 | 봉분(cm) (길이×너비×높이) | 1300×950×275 | | |
| 연도위치 | 현실 남벽 중앙 | 연도(cm) (길이×너비×높이) | 동: 178×120×136 서: 207×126×142 | 연도천장 | - |
| 현실위치 | 반지하 | 현실(cm) (길이×너비×높이) | 동: 252×120×162 서: 243×126×158 | 묘실천장 | 평천장 |
| 관대 | 현실에 각각 1개 | 관대(cm) (길이×너비×높이) | 동: 190×68×8 서: 174×78×8 | 관대제작 | - |
| 유적설명 | <p>황해북도 승호구역 금옥리에 위치한다. 금옥리 고분군에 포함되며 1979년 조사당시 이미 봉분의 서쪽부분은 유실된 상태였다. 하나의 봉분 안에 연도-현실의 단실분이 2개가 있는 이혈합장묘 형식이다. 현실에는 각각 관대 1개가 놓여있으며 관정과 관고리가 여럿 출토되었다. 벽에는 회를 발라 마감하였는데 동쪽 현실의 동벽에 회가 굳기 전에 절풍을 쓴 늙은 남자의 머리 부분이 선각화로 그려져 있다. 황혈석실분이지만 수혈석실분의 특징이 함께 보이는 점과 선각화의 존재 등으로 보아 축조시기는 3세기까지도 올려보기도 한다.</p> | | | | |
| 출토유물 | 철제관정(12), 철제고리(4) | | | | |
| 특이사항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벽화에 선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각화가 그려져있다 2. 연도와 현실의 폭이 동일하며 문 시설에 의해 연도와 현실의 공간이 구분된다 | | | | |

| | |
|------|---|
| 관련문헌 | <p>금옥리 고구려 무덤떼에 대하여, 조선고고연구 1995-3, 리준길 금옥리 벽화무덤, 조선고고연구 2002-2, 최응선</p> |
|------|---|